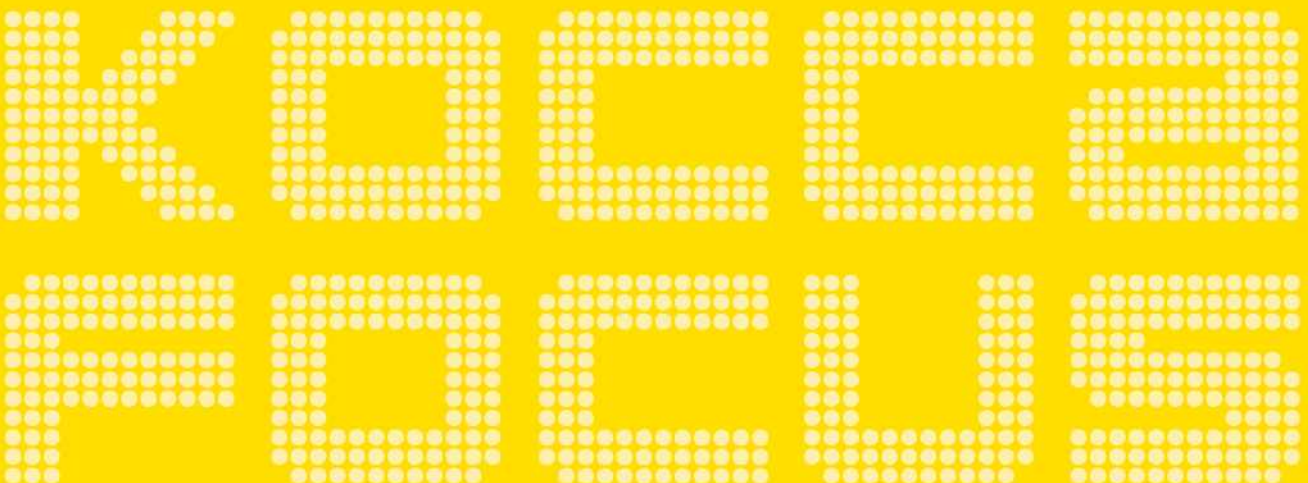


2009년 상반기 ‘한류’콘텐츠 현황

2009. 8. 22

요약

1. 일본 내 한류콘텐츠 현황
2. 중국 내 한류콘텐츠 현황
3. 베트남 내 한류콘텐츠 현황
4. 대만 내 한류콘텐츠 현황
5. 기타 지역 내 한류콘텐츠 현황
6. 2009년 상반기 방송영상물 수출입 현황



요 약

- 한류의 현상이 10년이 넘는 현재의 시점에서 아시아 각국의 한류 현황을 살펴보고 2009년도 상반기 한국 영상물 수출입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이 한류 재 쟁점화의 의미에서 필요한 작업이라 판단됨.

<일본>

- 일본은 한류에 있어 정착기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주춤하던 수출실적도 2007년 56%, 2008년 68.4%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일본 내 수출 콘텐츠 장르는 드라마, 교양, 다큐, 오락 등 매우 다양하지만 현재 까지 드라마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한국인 배우의 일본 방송콘텐츠에서의 활약과 한국드라마의 일본판 리메이크 등 지속적으로 전략적이고 새로운 한일 교류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중국>

- <가을동화>, <겨울연가>, <대장금> 등 한국 드라마들이 중국에서 열풍을 일으킨 이후 2006 이후 지속적인 침체기를 맞고 있음(수출 실적은 '07년 7.4%-->'08년 4.7%로 하락).
- 한국TV 드라마 수입 허가 편수는 다시 증가 추세에 있음: 29편(05년) -> 14편(06년) -> 17편(07년) -> 27편(08년).
- 수출된 프로그램으로는 <아내의 유혹>, <명랑소녀성공기>, <스타의 연인>, <일지매>, <찬란한 유산>, <쾌걸 춘향> 등 드라마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에도 <패밀리가 떴다>, <헤이헤이헤이>와 같은 오락 프로그램, 그리고 다큐 프로그램들도 수출되고 있음.

<베트남>

- 베트남 내 한류는 경제는 물론 정치·외교 면에서도 두드러짐. 짧은 시간 내에 정부와 국민 모두로부터 친근감을 얻고 있음.

- 한국-베트남 합작드라마인 <황금신부>가 호치민시 방송국 HTV3채널에서 방송되었으며, 116부작인 한국드라마 <백만송이 장미>가 VTV1채널에서 방송이외에도 <소문난 칠공주>가 VTV3를 통해 방송.

<대만>

- <가을동화>, <겨울연가>, <대장금>, <궁>, <커피프린스 1호점>, <꽃보다남자>, <아내의 유혹> 등 한국 드라마는 높은 인기를 얻고 있음.
- 대만으로 수출되는 방송콘텐츠 장르는 드라마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다큐, 오락, 음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가 포함되어 있음.
- 현재 <아내의 유혹>과 <꽃보다 남자>가 큰 인기를 끌고 있음.

<기타 지역>

- 몽골에서 한국 드라마가 폭넓게 방영되고 있음 <에덴의 동쪽>은 1TV를 통해 방영되었으며, 이외에도 <아내의 유혹>(UBS), <세종대왕>(TV5), <베토벤 바이러스>(TV9), <엄마가 뿔났다>(TV8)가 방영되고 있음.
- 중동지역 이란에서 IRIB국영방송 채널3에서 <주몽>방영. 이란의 IRIB TV는 <하얀거탑>, <상도>, <개와 늑대의 시간>등 방영권 DVD 판권이 2008년 초에 수출됨.
- 우즈벱에서는 <바람의 화원>이 국영방송인 YOSHLAR방송국에서 방영되고 있으며, 한국 사극 <서동요>가 <주몽>에 이어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아프리카의 이집트에서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해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가을동화>, <겨울연가>등 한국드라마와 인터넷 대중화로 인해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증폭되고 있음(한국어 능력시험이 현지에서 처음으로 시행됨).

<2009년 방송영상물수출입 현황 분석>

- 2009년도 상반기 한국 방송콘텐츠 수출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출은 전체 7,924만5,000 달러, 수입은 2,078만3,000 달러로 조사되었음. 이는 2007년 상반기 수출액인 5,012만 달러와 수입 963만9,000 달러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임.
- 지상파 방송사의 수출액은 7,470만6,000 달러로 2007년 4,264만6,000 달러(KBS는 추정치)에 비해 50% 가까이 늘었음. 이는 전체의 94%를 차지함. 이에 반해 케이블/독립제작사의 수출은 453만9,000 달러로 2007년 747만4,000 달러에 비해 급격히 하락했음. 이는 전체의 6%정도를 차지함.
- 지상파 방송사의 수입액은 159만2,000 달러로 이는 2007년 236만5,000 달러에 비해 매우 하락한 수치임. 케이블/독립제작사의 총 수입액은 1,919만1,000 달러로 2007년 727만4,000 달러 대비 대폭 증가했음. 2009년도 상반기 케이블/독립제작사의 수입액은 지상파의 10배 가까이 높은 편임.
- 지상파 방송사의 수출 장르는 드라마가 95.3%로 수출의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오락 프로그램이 2.4%를 차지함. 그 외의 장르들은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해 편중이 심한 편임. 케이블TV/위성TV/독립제작사/배급사의 경우에는 드라마가 6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애니메이션, 교양 프로그램이 각 6.5%를 차지함.
- 장르별 수출 단가는 드라마가 편당 2,600 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애니메이션(1,522 달러), 다큐(1,402 달러), 교양(1,400 달러)순이었음.
- 장르별 수입액을 살펴보면, 영화가 5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음 그 뒤를 드라마(32.8%), 애니메이션(9.2%), 다큐멘터리(4.1%)가 차지함.
- 지난 2007년 이후 수입 부분에서 급격한 감소를 보였던 영화 장르가 다시 수입 비중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1,048만 2,000 달러, 50.2%). 지난 '06년 72.6% →'07년 37.4%→'08년 16.85%와 비교 했을 시 두드러지는 부분임.

- 지상파 방송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수입 콘텐츠 장르는 다큐프로그래밍(69만5,000 달러, 43.7%). 다음으로 드라마(47만7,000 달러, 30%), 영화(25만7,000 달러, 16.1%)가 차지함. 케이블TV/위성TV/독립제작사/배급사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장르는 영화(1,022만5,000 달러, 53%) 다음으로 드라마(638만3,000 달러, 33.1%), 애니메이션(176만3,000 달러, 9.1%)순 임.
- 장르별 수입 단가는 영화가 편당 21,523 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드라마(7,613 달러), 음악(2,386 달러), 다큐(1,679 달러), 오락(1,076 달러)순이었음.
- 국가별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은 여전히 한류의 중심지인 일본이 가장 많은 거래를 하고 있음(수출: 3,306만2,000 달러, 63%). 수입은 미국이 가장 많은 거래를 하고 있음(수입:1,744만 3,000 달러, 83%).

1. 일본 내 한류콘텐츠 현황¹⁾

- 2004년 NHK에서 겨울연가 방영으로 시작된 일본에서의 “한류”는 2006년이 시작되면서 지상파에서 방송되는 한국 드라마 편수의 급격한 감소와 킬러콘텐츠의 부재로 인해 일본 내에서 한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제기되었음.
- 그러나 한류의 열기는 조금 식었지만, 도약기를 넘어 현재 정착기로 들어섰다는 관점이 존재하며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 사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일본 수용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폭넓게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또한 2006년 주춤하던 수출실적도 2007년 56%, 2008년 68.4%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한국인 배우의 일본 방송콘텐츠에서의 활약과 한국드라마의 일본판 리메이크 등 지속적으로 전략적이고 새로운 한일 교류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 일본 내 수출 콘텐츠 장르는 드라마, 교양, 다큐, 오락 등 매우 다양하지만 현재 까지 드라마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09년 상반기 한국드라마 방영 현황

- 이준기 주연의 <일지매>가 일본의 지상파 방송국인 텔레비전 도쿄로 일본 전역의 안방극장에 방송됨. 이는 이미 지난해 위성채널 소넷(So-net) TV로 일본에 소개된 적이 있음(DVD 대여는 지난 해 ‘주몽’보다 2배가 넘는 매수를 기록하고 있음)
- <에텐의 동쪽>, <대장금>, <꽃보다 남자> 등 한국에서 높은 시청률을 보인 드라마가 일본 내 지상파 방송사인 TBS를 통해 방영

1) (재)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2009), 국외 한류동향보고서-통신원 리포트를 중심으로, KOFICE. 2009.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재정리.

□ 일본 내 한류현황

- 한류의 현황을 한국드라마, 가요, 가수 공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NHK가 위성방송 개시 20주년을 기념해 시청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년간 방송된 223편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시청자 선정 최고 명작'으로 <겨울연가>가 전체 16만 533표 중 2만 375표(12.7%)로 1위를 차지했음 (이영애의 <대장금>은 11위를 차지함)
- 닌텐도 게임 <겨울연가 DS>가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음. <겨울연가 DS>는 드라마 줄거리를 기본으로 한 어드벤처 게임으로 2009년 가을에 판매 예정이고 게임 이외에 주인공이 촬영장소를 둘러보는 '데이트 모드' 및 미니게임을 포함할 예정임.
 - 이처럼 <겨울연가>는 애니메이션과 뮤지컬, 파칭코 시리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고, 게임 스토리까지 확대되어 드라마 콘텐츠가 다양한 문화 상품으로 이용 되고 있는 좋은 예임
- 주몽이 일본 최대 인터넷 무료 방송채널인 '갸오(Gyao)에서 6주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10위권 내 한류드라마가 5편이 꼽혔음(주몽(1위), 봄의 왈츠(4위), 12월의 열대야(5위), 마이걸(7위), 파리의 연인(9위)임
- 일본 최대 영상 및 음반 판매 대여점인 쓰타야(TSUTAYA)가 선정한 2006~2008년 3년간 많은 대여를 기록한 한류드라마조사에서 순서대로 <내 이름은 김삼순>, <겨울연가>, <궁>, <대장금>이 차지했음
- 이병헌과 김태희가 주연한 드라마 <아이리스>가 아키타 현에서 촬영됨에 따라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약 2억 엔(약 30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도통신이 보도
- 동방신기가 일본 전국 투어 마지막인 도쿄돔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함. 동방신기의 경우 일본 진출 4년동안 6연속 오리콘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일본의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성공한 사례임

- 이밖에도 SG워너비가 NHK홀에서 콘서트를 개최하고 오리콘 차트 9위에 오르는 등 인기를 얻고 있음

2. 중국 내 한류콘텐츠 현황²⁾

- 1997년 <사랑이 뭐길래>로 시작하여 한국드라마가 중국에 본격적으로 방영된 지 지금까지 만 10년이 넘었고 현재까지 한국 방송콘텐츠 주요 수출국 중 하나임
- <가을동화>, <겨울연가>, <대장금> 등 한국 드라마들이 중국에서 열풍을 일으킨 이후 2006 이후 지속적인 침체기를 맞고 있음(수출 실적은 '07년 7.4%-->'08년 4.7%로 하락)
- 그러나 2008년 북경 올림픽을 계기로 방송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중국 내 한국 영상 콘텐츠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중국 내 <아내의 유혹>을 필두로 한국 드라마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임
- 방송콘텐츠 수출 장르는 대부분 드라마임.

□ 2009년 상반기 한국드라마 방영 현황³⁾

- 한국TV 드라마 수입 허가 편수는 다시 증가 추세에 있음: 29편(05년) -> 14편(06년) -> 17편(07년) -> 27편(08년)
- 호남 TV에서 방영된 <캐럴 춘향>, <소문난 칠공주>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상공TV(星空卫视)을 통해 방영중인 <On Air>또한 인기를 끌고 있음

2) (재)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2009), 국외 한류동향보고서-통신원 리포트를 중심으로, KOFICE. 2009.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재정리

3) KOFICE(2009), 통신원 소식 재정리

- <소문난 칠공주>의 경우 첫 방송('09.2.25)부터 동 시간 대 시청률 1위를 차지, 마지막회에는 시청률 20.17%를 기록했음
- 중국 내 <인어 아가씨>로 많은 팬을 확보 하고 있는 장서희 주연의 <아내의 유혹>이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수출된 프로그램으로는 <아내의 유혹>, <명랑소녀성공기>, <스타의 연인>, <일지매>, <찬란한 유산>, <쾌걸 춘향> 등 드라마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에도 <패밀리가 떴다>, <헤이헤이헤이>와 같은 오락 프로그램, 그리고 다큐 프로그램들도 수출되고 있음
- 그러나 한국 드라마는 여전히 해적판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 최신 한국 드라마가 중국 TV방송국에서 바로 방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음. 따라서 젊은 층은 인터넷이나 불법 CD/DVD등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시청
- 중국 정부의 '그린 댐 정책' 등으로 인터넷 사이트 접속 통제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미미하지만 불법 다운로드의 유통을 규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중국 내 한류현황

- 한류의 현황을 한국드라마, 가요, 가수 공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한국드라마는 한류의 첨병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
 - <겨울연가>, <인어아가씨>, <대장금>의 성공으로 한국 관광 상품이 늘고, 최근 환율 급등으로 인해 중국 대도시의 물가가 한국 물가보다 더 높게 느껴져 한국 관광객들이 크게 늘었음
 - 특히 <겨울연가>와 <대장금>은 한국의 관광산업에 큰 공헌을 함. 방한 외국인의 수 15% 증가 했으며, 춘천시와 남이섬은 관광명소로 각광받았음
 - 최근 호남TV를 통해 방영된 <쾌걸춘향>의 인기로 한채영의 인기가 급부상

하고 있고, <On Air>의 드라마 인기도는 86.6%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었음

- <소문난 칠공주>가 인기를 끌면서, 이태란, 최정원, 박해진 등의 인기도 상승중이며, 중국 내 CF와 드라마 출연 제의를 받고 있음
- 그러나 중국내 한류 붐으로 인해 한국 드라마 편성 쿼터제 등 한국드라마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었음
- 드라마 <카인과 아벨>이 중국을 폄하했다는 중국 내 보도⁴⁾가 있어 네티즌들 사이에 동조움직임이 있었고, 드라마를 번역하는 회사들은 번역 작업을 중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해 자국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국의 특성상 드라마 내 중국 관련 내용의 표현을 조심 할 필요가 있음

○ 한국가요나 가수들의 공연은 꾸준히 인기를 유지

- 동방신기, 장나라, 슈퍼주니어 등 한국 가수들의 공연은 지속적으로 중국 팬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고 있음.
- '빅뱅' '원더걸스' 등 한국 인기가수에 대한 문의와 '슈퍼 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
- 한류 스타의 중국 현지 봉사 및 기부활동이 진행되고 한류스타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있음(장나라: 쓰촨성 지진 추모 음악 교실 설립, 박은혜: 불우이웃 돕기, 앤디: 팬 미팅 수익 불우이웃돕기 등)

○ 그러나 중국 공연계의 한류의 영향으로 인한 한국 가수 활동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 한편, 2009년 9월 4일 베이징르바오(北京日報)에 따르면 다음달 부터 중국에서 공연할 때 라이브 대신 립싱크를 하면 최고 3000위안(약 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 실시 세칙'에 따라 립싱크나 가짜 공연을 막기 위해 공연 주관사가 인력을 파견해 라이브 여부를 기록. 만약

4) 3월 13일자 중국신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다시 중국을 깔본 한국 드라마"라는 기사를 게재. 카인과 아벨은 인기배우 소지섭의 군제대 후의 복귀작으로 제작비 약 75억원을 들인 초대작으로 중국인들 사이에도 큰 관심을 모았으나, 부당하게 중국을 깔아내린 극중묘사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고 보도.

기록이 없을 경우 벌금을 물게 됨. 아울러 공연 주최측과 연예인들이 2년 내에 또 다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연허가증을 회수해 취소하기로 했음.

- 이러한 조치는 화려하고 격렬한 퍼포먼스를 펼치는 한류 가수를 겨냥했다는 평가가 있음
- 그러나 일부 한류스타(안재욱, 장나라, 송혜교)를 제외하고는 현지 진출에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음. '한류'스타의 공연은 무료 입장권을 배포해도 공석이 많은 편이며 이에 따라 중국 공연 측에서 객석의 70%이상의 관중을 모으지 못하면 공연을 취소한다는 계약 조항이 생겨날 정도여서 중국의 연예 시스템을 이해하고 현지화 전략으로 시장 공략을 할 필요가 있음

3. 베트남 내 한류콘텐츠 현황⁵⁾

- 베트남 내 한류는 경제는 물론 정치·외교 면에서도 두드러짐. 짧은 시간 내에 정부와 국민 모두로부터 친근감을 얻고 있음
- 베트남 내 한국드라마의 열풍으로 인해 한류가 새롭게 활성화되는 지역
- 코트라, 아세안 주요 7개국에 대한 조사보고서인 '아세안 휩쓰는 경제 한류'에서 베트남이 한국 상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 필름 BHD제작사가 KBS로부터 풀하우스의 포맷을 수입, '풀하우스' 베트남 판이 제작. 7~8월에 방영
- 수출 장르는 대부분 드라마이며, 다큐 형식의 음악 프로그램도 수출이 되고 있음

5) (재)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2009), 국외 한류동향보고서-통신원 리포트를 중심으로, KOFICE. 2009.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재정리

□ 2009년 상반기 한국드라마 방영 현황⁶⁾

- 한국-베트남 합작드라마인 <황금신부>가 호치민시 방송국 HTV3채널에서 방송
- 116부작인 한국드라마 <백만송이 장미>가 VTV1채널에서 방송(2009년 2월 20일부터)
- 이외에도 <소문난 칠공주>가 VTV3를 통해 방송

4. 대만 내 한류콘텐츠 현황

- 대만 내 한류콘텐츠에 대한 반응은 전체적으로 좋은 편임
- 한류 드라마 <대장금>이 대만 타이중시에서 불법으로 복제, 판매 되어 대만 정부가 과징금을 지불한 사건 발생. 이와 함께 다른 한국 드라마에 대한 불법 복제와 인터넷 상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저작권 침해 사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대만 정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고민중

□ 대만 내 한류현황

- 가수 BOA의 싱글앨범이 3주 연속 10위권을 지속하고 있고, 슈퍼주니어의 3집 또한 KKBOX 집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대만에서 인기있는 한류 가수의 수는 적은 편, 그러나 <BOA>, <동방신기> <슈퍼 주니어>, <신화>는 대만 진출에 성공했지만, 일본과 비교했을 때,

6) (재)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2009), 국외 한류 동향 보고-통신원 리포트를 중심으로, 2009. 3. P.3 재정리

매우 소극적

□ 2009년 상반기 한국드라마 방영 현황

- <가을동화>, <겨울연가>, <대장금>, <궁>, <커피프린스 1호점>, <꽃보다 남자>, <아내의 유혹> 등 한국 드라마는 높은 인기를 얻고 있음
 - 이로 인해 음식 등 관련 상품 및 한국산 제품, 그리고 한국 관광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현재 한국 드라마 시청률의 1위는 <아내의 유혹>으로 대만 GTV를 통해 방영 중임
- 대만으로 수출되는 방송콘텐츠 장르는 드라마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다큐, 오락, 음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가 포함되어 있음
- 한류 드라마에 대한 인기 저조 상황에서 <꽃보다 남자> 대만에서 현지 방영(GTV, GIS)되고 있음

5. 기타 지역 내 한류콘텐츠 현황

- 몽골에서 한국 드라마가 폭넓게 방영되고 있음 <에덴의 동쪽>은 1TV를 통해 방영되었으며, 이외에도 <아내의 유혹>(UBS), <세종대왕>(TV5), <베토벤 바이러스>(TV9), <엄마가 빨났다>(TV8)가 방영되고 있음
 - <아내의 유혹>은 몽골내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이러한 드라마와 영화등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 가보고 싶은 나라로 인식되어 한국어 교육 붐이 일고 있음
- 홍콩은 드라마 <식객>이 최대 공중파 방송 TVB HD Jade를 통해 방송. <대

장금>에 이어 음식을 소재로 한 드라마로 관심 고조

- 중동지역 이란에서 IRIB국영방송 채널3에서 <주몽>방영. 이란의 IRIB TV는 <하얀거탑, <상도>, <개와 늑대의 시간>등 방영권 DVD 판권이 2008년 초에 수출됨
 - 이란에서 2007년에 <대장금>이 방영, 최고 시청률 90%를 기록한 적이 있음. 이후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주몽>은 2008년 12월 9일부터 방영되 최근까지 60%의 시청률을 기록함
- 태국에서는 음악 차트 프로그램인 <엠타운트 다운>이 지상파에 진출했음
 - 엠넷 미디어가 태국 지상파 Ch.5에 <엠카운트다운>을 프라임 시간대인 밤 11시20분~12시 10분까지 방송. Ch.5는 약 2000만 시청자를 보유하고, 젊은 층이 가장 즐겨보는 채널임
- 우즈벱에서는 <바람의 화원>이 국영방송인 YOSHLAR방송국에서 방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근영의 인기가 매우 높음
 - 한국 사극 <서동요>가 <주몽>에 이어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아프리카의 이집트에서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해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가을동화>, <겨울연가>등 한국드라마와 인터넷 대중화로 인해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음(한국어 능력 시험이 현지에서 처음으로 시행됨)

6. 2009년도 상반기 방송콘텐츠 수출입 현황⁷⁾

- 2009년도 상반기 한국 방송콘텐츠의 수출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출은 전체 7,292만5,000 달러, 수입은 2,078만3,000 달러로 조사되었음. 이는 2007년 상반기 수출액인 5,012만 달러와 수입 964만 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임

7) 2007년 방송콘텐츠 상반기 수출입 현황은 윤재식(2007) 2007년 방송콘텐츠 상반기 수출현황, KBI Focus의 조사 자료를 활용.

<표 1> 2009년 상반기 방송콘텐츠 수출입 현황(2007년 상반기 비교)

(단위: 천 달러)

구 분	2009년		2007년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총 계	79,245	20,783	50,120	9,639
지상파방송사 (2007년에는 KBS 추정액 계산)	74,706	1,592	42,646	2,365
케이블/독립제작사	4,539	19,191	7,474	7,274

※ 2007년 수출입 자료에서 KBS는 추정치 자료를 사용

□ 수 출

- 지상파 방송사의 수출액은 7,470만6,000 달러로 2007년5,012만 달러(KBS는 추정치)에 비해 49% 증가하였음.
- 케이블/독립제작사의 수출은 453만9,000 달러로 2007년 747만4,000 달러에 비해 감소하였음. 이는 전체의 6%정도 차지함
- 2009년도 상반기 지상파 방송사의 수출액 비중은 94%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 이는 지난 2007년 상반기 실적과 비교했을 때 전체 비중의 17%가 늘었음. 지상파 방송사의 드라마 등 방송콘텐츠가 해외의 전반적인 인기에 비로워진 것으로 판단됨
- 케이블/독립제작사의 수출액 비중은 지난 2007년 전체 수출액 비중보다 17% 줄었음. 이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인한 거래실적 저조가 그 원인으로 보임

□ 수입

- 지상파 방송사의 수입액은 159만2,000 달러로 이는 2007년 236만5,000 달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임. 케이블/독립제작사의 수입액은 1,919만1,000 달러로 2007년 727만4,000 달러에 비해 대폭 상승했음
- 2009년도 상반기 케이블/독립제작사의 수입액은 지상파의 10배 가까이 높은 편
- 이는 미국 드라마의 지속적인 국내 인기에 따른 케이블(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수입량 증가에 따른 것이라 판단됨.

□ 매체별 수출입 점유율

- ▲ 수출 ⇒ 지상파방송 : 케이블/독립제작사 = 94% : 6%(이는 2007년 상반기 77%:23%에서 지상파의 수출이 전체 비중 대다수를 차지함)

(08년 85%:15% / 06년 - 89% : 11% / 05년 - 92% : 8%)

- ▲ 수입 ⇒ 지상파방송 : 케이블/독립제작사 = 8% : 92%(2007년 상반기 19% : 81%에서 케이블/독립제작사의 수출 비중이 매우 커짐)

(08년 - 22%:78% / 06년 - 33% : 67% / 05년 - 34% : 66%)

□ 수출입 방송콘텐츠 장르별 평균단가

- ▲ 수출 '08년 2,808 달러(수출 편당 평균단가) → '09년 상반기 2,357 달러(지상파: 2,160 달러/ 케이블 독립제작사: 5,225 달러)

☞ 장르별 평균단가

- 드 라 마 : '08년 3,183 달러 → '09년 상반기 2,600 달러

- 다 큐 : '08년 1,301 달러 → '09년 상반기 1,402 달러
- 애니메이션 : '08년 3,264 달러 → '09년 상반기 1,522 달러

▲ 수입 '08년 1,533 달러(지상파 2,134 달러 / 케이블·독립제작사1,434 달러)

→ '09년 상반기 4,286 달러(지상파 1,510 달러 / 케이블·독립제작사 5,057 달러)

<표 2 > 2007년도 상반기 방송콘텐츠 장르별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구 분	지상파방송사		케이블·위성·독립제작사 ·배급사		총 계	
	,000 달러	%	,000 달러	%	,000 달러	%
드라마	42,878	95.3	4,624	61.9	47,502	90.5
다 큐	399	0.9	236	3.2	635	1.2
애니메이션	94	0.2	486	6.5	580	1.1
오 락	1,060	2.4	142	1.9	1,202	2.3
음 악	-	-	266	3.6	266	0.5
교 양	277	0.6	486	6.5	763	1.5
기 타 ⁸⁾	296	0.7	1,232	16.5	1,528	2.9
총 계	45,004	100	7,472	100	52,4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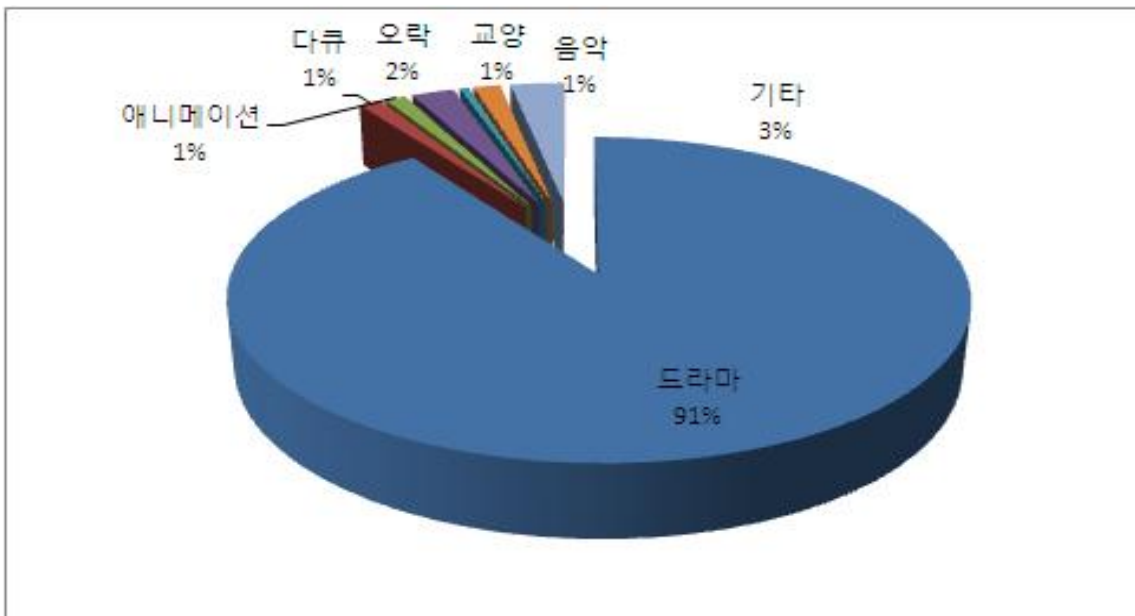
* 해외교포방송지원, 비디오 DVD 판매액 제외

8) 경제, 공연, 교육, 스포츠 등 카테고리에 없는 모든 항목을 포함함.

- 상반기 수출액을 장르별로 살펴보면, 드라마가 전체의 90.5%인 4,750만2,000 달러를 수출하였고, 그 뒤를 오락 프로그램이 2.3%인 120만2,000 달러 임
- 수출의 경우, 드라마 수출 비중은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애니메이션의 경우 케이블/독립제작사의 수출저조로 인해 2008년 5.3% 비중이었던 반면 1.1%로 매우 낮아졌음
- 해외에서의 국내 버라이어티/오락 프로그램의 인기로 인해 오락 장르의 수출 비중이 2008년 1.6%에서 2009년 상반기 2.3%로 늘었음

- * 드라마 비율 : '08년 91.1%(1억536만9,000 달러) → '09년 상반기 90.5%
- * 애니메이션 비율: '08년 5.3%(611만1,000 달러) → '09년 상반기 1.1%
- * 오락 비율: '08년 1.6%(186만4,000 달러) → '09년 상반기 2.3%

<그림 1> 방송콘텐츠 장르별 수출 구성비



- 지상파 방송사의 수출 장르는 드라마가 95.3%로 수출의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오락 프로그램이 2.4%를 차지함. 그 외의 장르들은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해 편중이 심한 편임

- 케이블/위성/독립제작사 및 배급사의 경우에는 드라마가 6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애니메이션, 교양 프로그램이 각 6.5%를 차지함

<표 3> 2009년 상반기 방송콘텐츠 장르별 수출 단가 비교

(단위: 달러)

구분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TV·위성·독립 제작사	전 체
	수출	수출	수출
드라마	2,384	16,281	2,600
다큐	2,714	771	1,402
애니메이션	292	8,100	1,522
오락	548	557	549
음악	-	686	686
교양	628	4,673	1,400
전체	2,160	5,225	2,357

* 해외교포방송지원, 비디오 DVD 판매액 제외

- 장르별 수출 단가는 드라마가 편당 2,600 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애니메이션(1,522 달러), 다큐(1,402 달러), 교양(1,400 달러)순이었음
- 장르별 수입액을 살펴보면, 영화가 50.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음. 그 뒤를 드라마(33.0%), 애니메이션(9.2%), 다큐멘터리(4.1%)가 차지함
- 지난 2007년 이후 수입 부분에서 급격한 감소를 보였던 영화 장르가 다시 수입 비중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10,482,000 달러, 50.2%). 지난 '06년 72.6% →'07년 37.4%→'08년 16.85%와 비교했을 시 두드러지는 부분임
- '08년 44.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드라마는 33.0%로 줄어들었음. 이는 미국 드라마 시리즈의 국내 인기가 조금씩 줄고 있다는 것을 예측하게 함

- 지상파 방송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수입 콘텐츠 장르는 다크프로그램임(69만5,000 달러, 43.7%), 다음으로 드라마(47만7,000 달러, 30%), 영화(25만7,000 달러, 16.1%)가 차지함
- 케이블/위성/독립제작사/배급사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장르는 영화(1,022만5,000 달러, 53.3%) 다음으로 드라마(638만3,000 달러, 33.3%), 애니메이션(176만3,000 달러, 9.2%)순임

<표 4 > 2009년도 상반기 방송콘텐츠 장르별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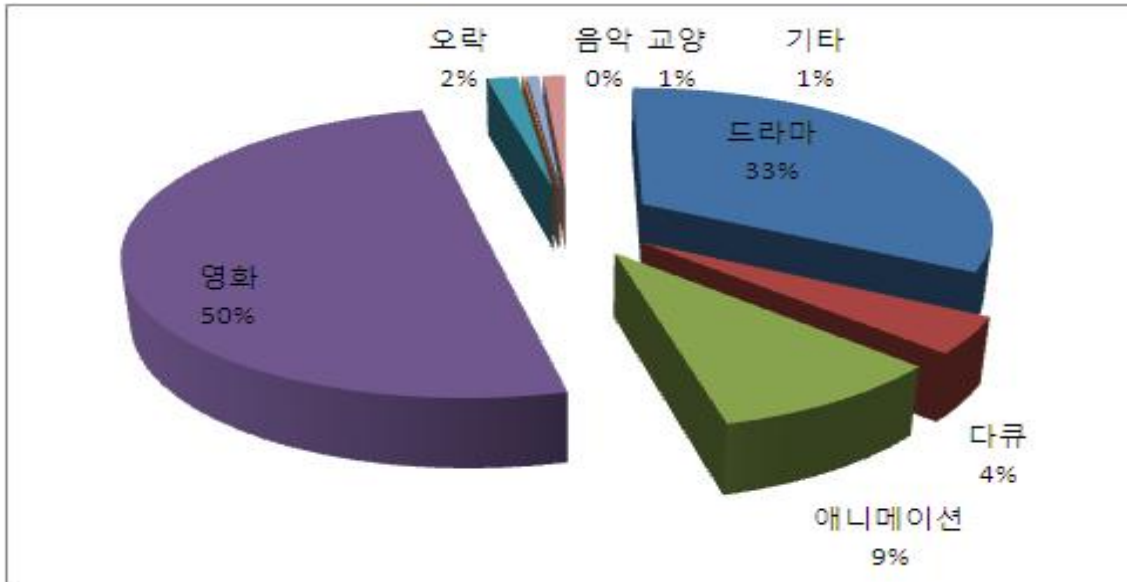
구분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위성·독립제작사·배급사		총 계	
	천 달러	%	천 달러	%	천 달러	%
드라마	477	30.0	6,383	33.3	6,860	33.0
다큐	695	43.7	158	0.8	853	4.1
애니메이션	157	9.9	1,763	9.2	1,920	9.2
영화	257	16.1	10,225	53.3	10,482	50.4
오락	-	-	354	1.9	354	1.7
음악	6	0.4	25	0.1	31	0.1
교양	-	-	140	0.7	140	0.7
기타 ⁹⁾	-	-	143	0.8	143	0.7
총계	1,592	100	19,191	100	20,783	100

* 해외교포방송지원, 비디오 DVD 판매액 제외

9) 경제, 공연, 교육, 스포츠 등 카테고리에 없는 모든 항목을 포함함.



<그림 2> 방송콘텐츠 장르별 수입 구성비



<표 5> 2009년 상반기 방송콘텐츠 장르별 수입 단가 비교

(단위: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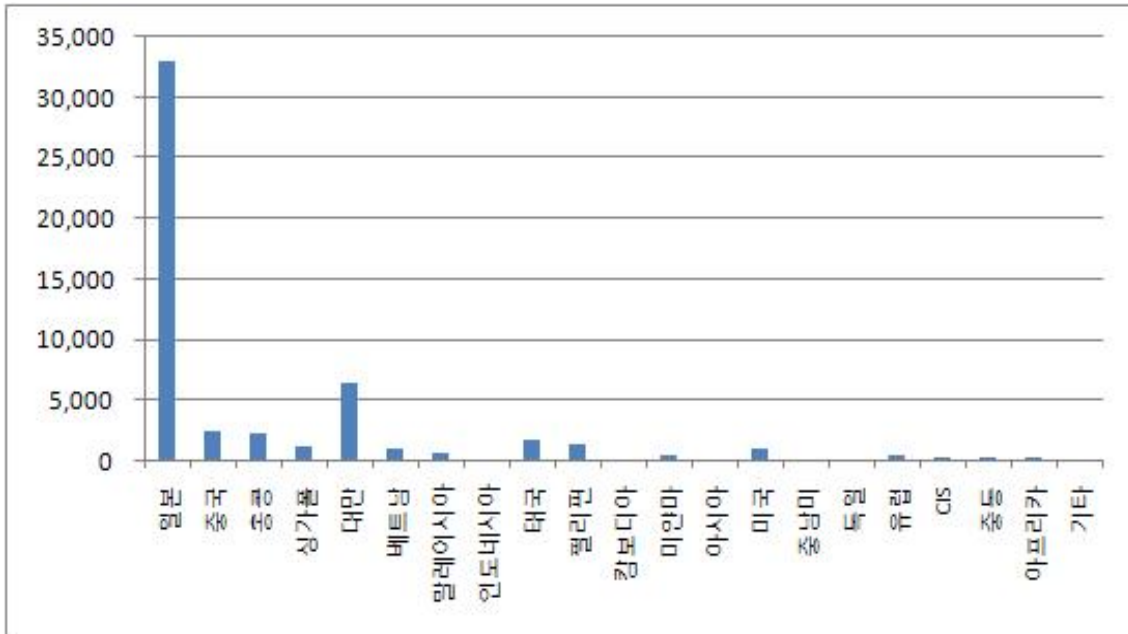
구분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TV·위성·독립 제작사·배급사	전 체
	수입	수입	수입
드라마	3,975	8,172	7,613
다큐	2,112	883	1,679
애니메이션	288	1,054	866
영화	4,356	23,890	21,523
오락	-	1,076	1,076
음악	-	2,273	2,385
교양	-	427	427
전체	1,510	5,057	4,286

- 장르별 수입 단가는 영화가 편당 21,523 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드라마(7,613 달러), 음악(2,386%), 다큐(1,679 달러), 오락(1,076 달러)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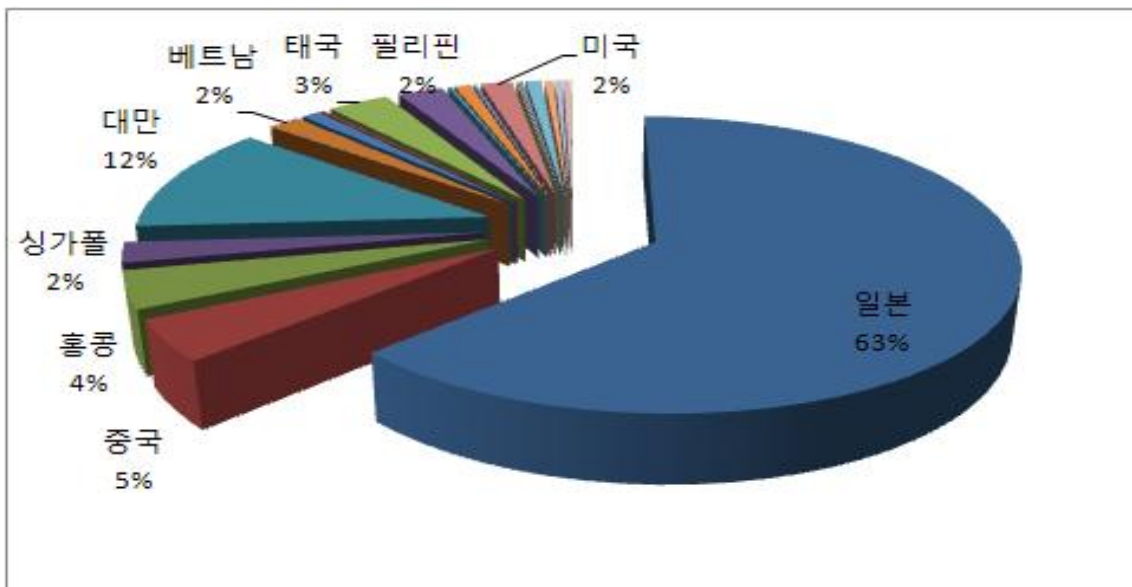
□ 국가별 방송콘텐츠 수출입 현황

- 국가별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은 여전히 한류의 중심지인 일본이 가장 많은 거래를 하고 있음(수출: 3,306만2,000 달러, 63%). 수입은 미국이 가장 많은 거래를 하고 있음(수입:1,744만3,000 달러, 83%)
- 수출은 여전히 아시아 편중적임(일본 63%, 대만 12%. 중국 5%, 홍콩 4% 등 아시아 지역에서 97%를 차지하고 있음)
 - 수출 국가는 일본('08년 69.7% → '09년 상반기 63%), 대만('08년 6.7% → '09년 상반기 12%), 중국('08년 4.8% → '09년 상반기 5%)등의 순.
 - 대만의 수출이 '08년 6.7%에서 '09년 상반기 12%로 대폭 상승. 드라마의 수출이 두드러졌음
- 수입은 미국(83%), 일본(7%), 영국(5.0%), 중국(5.0%)등의 순이며, 주로 미국의 경우 영화와 드라마, 일본과 중국은 드라마, 영국의 경우 다큐멘터리가 대부분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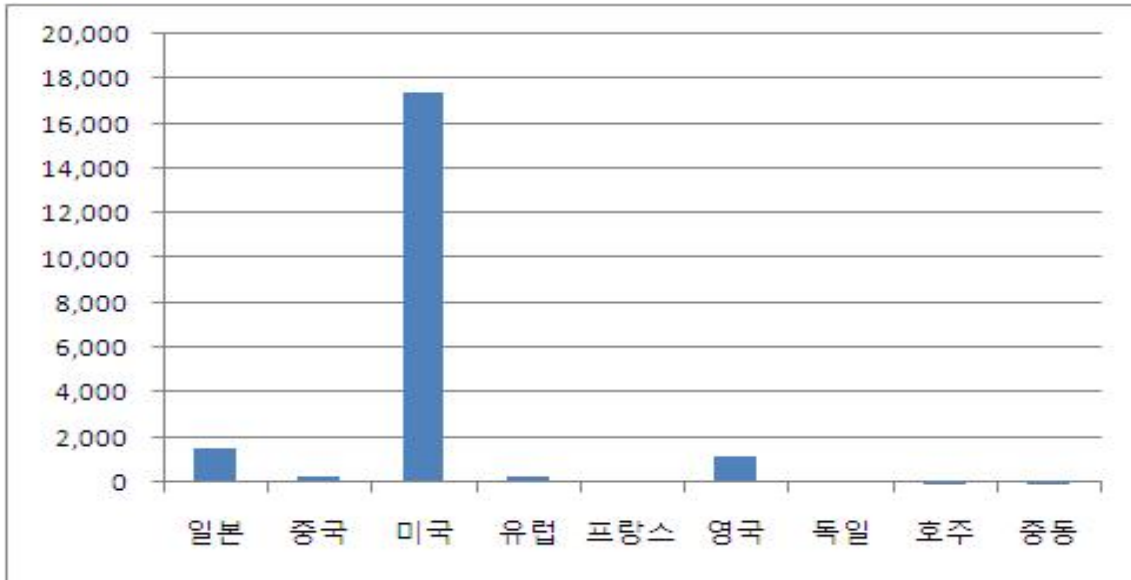
<그림 3> 국가별 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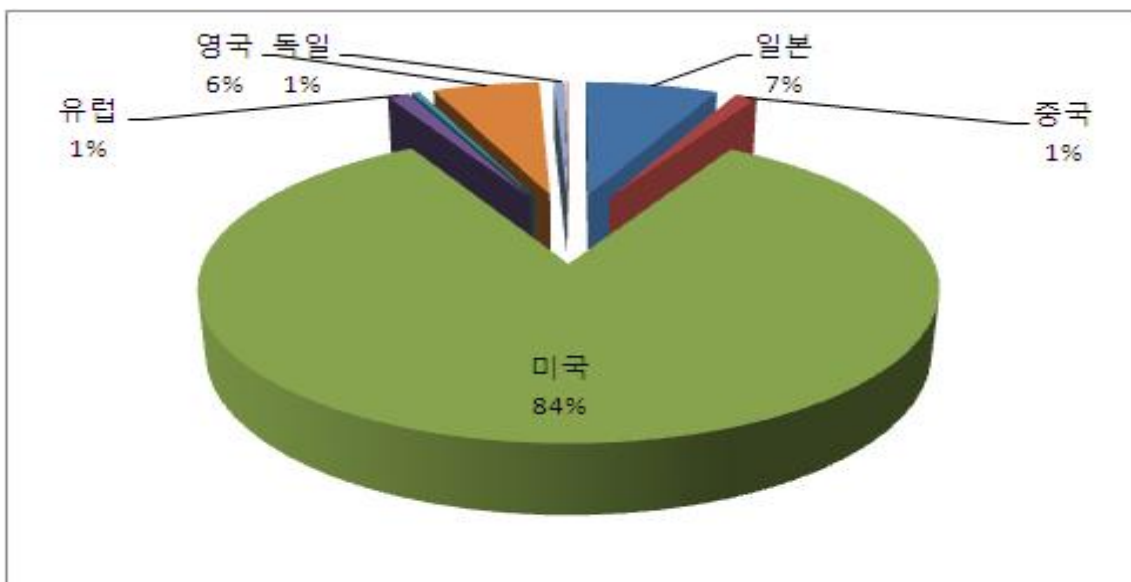
<그림 4> 국가별 수출 비중



<그림 5> 국가별 수입 현황



<그림 6> 국가별 수입 비중



□ '09 년 상반기 수출입 총괄

(단위 : 천 달러)

구분	수출		수입	
	편수	금액	편수	금액
총계(①+②+③+④+⑤)	22,971	79,245	4,529	20,783
① 해외교포방송지원	259	6,074	-	-
② 비디오, DVD판매	87	14,495	820	413
③ 방송프로그램	22,515	47,947	3,709	20,370
④ 타임블럭판매	-	10,409	-	-
⑤ 포맷판매	110	320	-	-
지상파전체	20,928	74,706	1,054	1,592
케이블, 배급사, 독립제작사	2,043	4,539	3,792	19,191

□ '09 년 상반기 매체별 현황

(단위 : 천 달러)

구분	수출		수입	
	편수	금액	편수	금액
총계(①+②+③)	22,971	79,245	4,529	20,783
① 지상파방송사	20,928	74,706	1,054	1,592
해외교포지원	-	5,707	-	-
비디오, DVD판매	-	14,453	-	-
방송프로그램	20,818	45,008	1,054	1,592
타임블럭판매	-	9,218	-	-
포맷판매	110	320	-	-
② 케이블 및 지역민방	1,781	2,631	3,277	18,144
해외교포지원	259	367	-	-
비디오, DVD판매	87	42	815	390
방송프로그램	1,435	1,031	2,462	17,754
타임블럭판매	-	1,191	-	-
포맷판매	-	-	-	-
③ 배급사 및 독립 제작사	262	1,908	198	1,047
해외교포지원	-	-	-	-
비디오, DVD판매	-	-	5	13
방송프로그램	262	1,908	193	1,034
타임블럭판매	-	-	-	-
포맷판매	-	-	-	-

□ '09 년 상반기 장르별 현황

(단위 : 천 달러)

구 분	총 계				지상파방송사				케이블·위성·독립제작사·배급사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총 계	52,476 (22,262)	100	20,783 (4,849)	100	45,004 (20,832)	100	1,592 (1,054)	100	7,472 (1,430)	100	19,191 (3,795)	100
드라마	47,502 (18,272)	90.5	6,860 (901)	33.0	42,878 (17,988)	95.3	477 (120)	30.0	4,624 (284)	61.9	6,383 (781)	33.3
다 큐	635 (453)	1.2	853 (508)	4.1	399 (147)	0.9	695 (329)	43.7	236 (306)	3.2	158 (179)	0.8
애니 메이션	580 (381)	1.1	1,920 (2,217)	9.2	94 (321)	0.2	157 (544)	9.9	486 (60)	6.5	1,763 (1,673)	9.2
영 화	-	-	10,482 (487)	50.4	-	-	257 (59)	16.1	-	-	10,225 (428)	53.3
오 락	1,202 (2,188)	2.3	354 (329)	1.7	1,060 (1,933)	2.4	-	-	142 (255)	1.9	354 (329)	1.9
음 악	266 (388)	0.5	31 (13)	0.1	-	-	6 (2)	0.4	266 (388)	3.6	25 (11)	0.1
교 양	763 (545)	1.5	140 (328)	0.7	277 (441)	0.6	-	-	486 (104)	6.5	140 (328)	0.7
기 타 ¹⁰⁾	1,528 (35)	2.9	143 (66)	0.7	296 (2)	0.7	-	-	1,232 (33)	16.5	143 (66)	0.8

※ 해외교포방송 및 타임블럭, 일부 DVD/비디오 판매 등은 제외

※ 소수점에서 반올림해 계산하므로 한자리 수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안은 편수

10) 경제, 공연, 교육, 스포츠 등 카테고리에 없는 모든 항목을 포함함.

<'09 년 상반기 장르별 수출입 단가 비교>

(단위 : 달러,편당)

구분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TV·위성·독립제작사		전 체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드라마	2,384	3,975	16,281	8,172	2,600	7,613
다큐	2,714	2,112	771	883	1,402	1,679
애니메이션	292	288	8,100	1,054	1,522	866
영화	-	4,356	-	23,890	-	21,523
오락	548	-	557	1,076	549	1,076
음악	-	-	686	2,273	686	2,385
교양	628	-	4,673	427	1,400	427
전체	2,357	1,510	2,160	5,057	5,225	4,286

□ '09 년 상반기 수출입 국가별 현황

(단위 : 천 달러)

구분	총 계				지상파방송사				케이블TV 등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총계	52,476 (22,258)	100	20,783 (4,849)	100	45,004 (20,832)	100	1,592 (1,054)	100	7,472 (1,427)	99	19,191 (3,795)	100
일본	33,062 (7,577)	63	1,502 (1,106)	7	27,138 (7,377)	60	95 (43)	6	5,924 (200)	79	1,407 (1,063)	7
중국	2,378 (2,419)	5	251 (281)	1	2,346 (2,367)	5	169 (51)	11	32 (52)	-	82 (230)	-
홍콩	2,173 (1,062)	4	-	-	1,964 (871)	4	-	-	209 (191)	3	-	-
싱가폴	1,190 (1,495)	2	-	-	1,156 (1,450)	3	-	-	34 (45)	-	-	-
대만	6,298 (2,161)	12	-	-	6,271 (2,152)	14	-	-	27 (9)	-	-	-
베트남	904 (997)	2	-	-	894 (982)	2	-	-	10 (15)	-	-	-
말레이시아	520 (346)	1	-	-	478 (220)	1	-	-	42 (126)	1	-	-
인도네시아	90 (203)	-	-	-	84 (97)	-	-	-	6 (106)	-	-	-
태국	1,739 (1,265)	3	-	-	1,564 (967)	3	-	-	175 (298)	2	-	-
필리핀	1,279 (391)	2	-	-	1,279 (391)	3	-	-	-	-	-	-
캄보디아	116 (746)	-	-	-	102 (541)	-	-	-	14 (205)	-	-	-
미얀마	455 (1,309)	1	-	-	455 (1,309)	1	-	-	-	-	-	-
아시아 ¹¹⁾	106 (401)	-	-	-	106 (401)	-	-	-	-	-	-	-

11) 라오스, 몽골, 브루나이, 스리랑카를 포함한 기타 아시아 국가

구분	총 계				지상파방송사				케이블TV 등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미국 ¹²⁾	892 (94)	2	17,343 (1,767)	83	30 (11)	-	696 (289)	44	862 (83)	12	16,647 (1,478)	87
중남미 ¹³⁾	44 (71)	-	-	-	44 (71)	-	-	-	-	-	-	-
프랑스	-	-	91 (133)	-	-	-	55 (66)	3	-	-	36 (67)	-
영국	-	-	1,198(833)	6	-	-	460 (437)	29	-	-	738(396)	4
독일	126 (2)	-	118 (199)	1	126 (2)	-	28 (46)	2	-	-	90 (153)	-
유럽 ¹⁴⁾	449 (421)	1	244 (409)	1	379 (362)	1	87 (121)	5	70 (59)	1	157 (288)	1
호주	-	-	32 (106)	-	-	-	2 (1)	-	12(4)	-	30 (105)	-
CIS	237 (658)	-	-	-	237 (658)	1	-	-	0	-	-	-
중동	175 (324)	-	2 (15)	-	161 (291)	-	-	-	14 (33)	-	2 (15)	-
아프리카	202 (316)	-	-	-	190 (312)	-	-	-	12 (4)	-	-	-
기타	41 (1)	-	-	-	-	-	-	-	41 (1)	1	-	-

※ 해외교포방송 및 타임 블럭, 일부 DVD/비디오 판매 등은 제외

※ 소수점에서 반올림해 계산하므로 한자리 수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12) 북미와 캐나다 포함

13)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14) 네덜란드, 스위스,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러시아를 포함한 기타 유럽국가

참고자료

(재)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2009), 국외 한류동향보고서-통신원 리포트를 중심으로, KOFICE. 2009.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재)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2009), 통신원 소식, KOFICE.

윤재식(2007), 2007년 상반기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KBI FOCUS 2007-1.